

## 음양오행론에서 『淮南子』와 『五行大義』의 위상과 상이점

강성인\* · 김만태\*\*

### Ⅰ 국문초록 Ⅰ

秦漢代의 음양오행론을 대표할 수 있는 『淮南子』와 隋代 『五行大義』의 음양오행론을 비교·분석하였다. 『회남자』는 時令을 기술한 「時則訓」을 포함하여 「天文訓」·「墜形訓」·「泰族訓」 등에서 음양오행 이론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한대까지의 문헌 중 음양오행론이 가장 발전하였고, 『오행대의』는 古代의 음양오행 이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편찬한 음양오행론의 대표적인 전적이다.

『회남자』의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 오행의 生剋制化에서 『회남자』는 相生과 相剋을 설명하면서 合沖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오행대의』에서 干습과 支습, 그리고 干沖과 支沖의 합충이론을 기술하면서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되었으며, 나아가 刑害 이론도 성립되었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토의 會습을 午戌寅이라 한 것을 『오행대의』에서 辰戌丑未로 정리하였고, 『회남자』에서는 토가 일 년을 관장하는 기간이 정리되지 않아 四季月說·72日季夏說·30日季夏說로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나, 『오행대의』에서 四季에 해당하는 辰未戌丑月을 토가 주재하는 달로 정하였다.

[주제어] 회남자, 오행대의, 음양오행론, 生剋合沖, 오행배속

### Ⅰ 목 차 Ⅰ

- |                       |                            |
|-----------------------|----------------------------|
| I. 머리말                | IV. 음양오행론에서 『오행대의』의 위상     |
| II.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위상 | V.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
| III. 『회남자』의 주요 음양오행론  | VI. 맺음말                    |

\* 제1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박사과정 / luceen502@daum.net

\*\* 교신저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조교수 / ware4u@hanmail.net

## I. 머리말

음양오행론은 전국시대 齊나라의 鄒衍에 의해 이론적인 형태를 갖추고,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한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다. 『尙書』 「洪範」을 비롯하여 많은 문헌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되지만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淮南子』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음양오행론이 필요한 時令을 다룬 「時則訓」을 포함하여 天地四方의 음양오행에 관한 이론을 「天文訓」·「墜形訓」·「泰族訓」 등에 다방면으로 수록하고 있어, 한대까지 음양오행론이 가장 발전되고 다양하게 기술된 문헌이 『회남자』이다. 그 이후 음양오행론이 『春秋繁露』·『白虎通義』·『漢書』 「五行志」 등에 단편적으로 전해오다가, 『五行大義』에서 隋代 이전까지 전하여 오던 음양오행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는데, 古代에 음양오행학설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저작으로 음양오행론이 완전히 보존된 것은 『오행대의』만이 있을 뿐이다.

『회남자』는 한대 초기 회남왕 유안(B.C.179~B.C.122)이 B.C.139년에 漢武帝(B.C.156~B.C.87)에게 헌상한 책으로, 제자백가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저술하고 유안이 주편한 것이고, 『오행대의』는 隋代에 蕭吉(529~606)이 諸典籍에서 오행과 관련된 글을 발췌하고 찬술하여 開皇14년(594년)에 隋文帝(581~604)에게 올린 책이다.

『회남자』는 道家 黃老學이 중심 사상이었고, 항로학에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통한다는 천인감응론과 자연변화의 순리에 따르는 음양오행론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음양오행론은 한대 초기에 정치·사회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회남자』에서 오행의 生剋 관계와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旺相休囚死와 十二運星法이 성립되고, 오행의 相治이론이 기술되었으며, 그리고 오행 중 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오행의 用事를 정하였고, 시령을 통하여 諸事物을 오행에 배속하였다.

『五行大義』는 소질이 諸文獻에 나타난 오행론을 취합하여 정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저작하였다는 것보다는 문헌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이 전반에 걸쳐 기술되었으며, 특히 진한대에는 성립되지 않았던 合神理論이 완성되었다.

『회남자』의 선행연구가 道家·無爲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많은데,<sup>1)</sup> 음양오행론에 대해서는 이석명의 「『회남자』의 時令思想과 음양오행론」, 그리고 강성인의 「『회남자』의 음양오행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과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이 있다.<sup>2)</sup> 이석명은 시령사상을 중심으로 음양오행론에 접근하였고, 강성인의 「『회남자』의 음양오행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은 명리학의 근원과 음양오행론의 상관성 연구

1) 윤찬원, 「『회남자』에 있어서 도가적 계기와 도교적 계기」, 『동양문화』 27,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89; 이석명, 「『회남자』의 무위론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박승현, 「『회남자』에 나타난 도가사상의 경향」, 『중국학보』 45, 한국중국학회, 2002; 김용수, 「『회남자』에 나타난 莊學사상」, 『도교문화연구』 20, 한국도교문화학회, 2004; 박문현, 「『회남자』의 무위의 정치사상」, 『통일전략』 9,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윤지원, 「『회남자』와 도가」, 『도교문화연구』 32, 한국도교문화학회, 2010; 박승현, 「『회남자』에 나타난 무위개념의 특징」, 『동양철학』 35, 한국동양철학회, 2011.

2) 이석명, 「『회남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研究』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강성인,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에 치중하였으며,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에서는 『회남자』에 포함된 고유한 음양오행론을 다루었다. 『오행대의』의 선행연구는 이동아의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과 장종원의 「소길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오행설 연구」(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가 있다. 위 두 논문은 주로 『오행대의』의 해석에 치중하면서, 이동아는 『오행대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행의 사유와 취상귀류의 방법을 논하였고, 장종원은 음양오행설의 성립과 변용과정을 논술하면서 『오행대의』를 해설하였다.

이에 논자는 『회남자』를 통하여 진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논의하면서, 『회남자』가 타 문헌에 비해 음양오행론이 다양하게 수록된 이유를 설명하고, 음양오행론이 총괄된 『오행대의』에서 오행의 생극제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700여년의 시차를 둔 『회남자』와 『오행대의』에 내재된 음양오행론의 상이점을 찾고자 하였다.

『회남자』의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 『오행대의』에는 『회남자』에서 밝히지 못한 중요한 이론을 수록하고 있다. 음양오행론의 핵심이 生剋制化인데 『회남자』는 생극에 대하여 「천문훈」과 「지형훈」에서 相生과 相剋을 설명하면서 생극이론은 완성했으나 합충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오행대의』에서 天干合과 地支合 뿐만 아니라, 天干沖과 地支沖이 성립되어 「論合」과 「論衝破」에서 합충을 설명하면서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오행대의』는 생극합충 외에 刑害 이론도 기술하였고, 『회남자』의 토의 會合과 토의 用事를 이치에 합당하게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음양오행론에서 진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회남자』와 수대의 『오행대의』 두 문헌을 통하여 그들의 위상을 밝히고 상이점을 논의함으로써 음양오행론이 성숙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위상

### 1.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의 비중

『회남자』에 음양오행론이 다른 문헌에 비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기재된 것은, 고대에 음양오행론이 시령에 많이 활용되었는데, 『회남자』의 「시칙훈」을 통하여 『禮記』 「月令」과 『呂氏春秋』 「十二紀」와 더불어 시령에 나타나는 음양오행론을 함축할 수 있었고, 한대 『회남자』 이후 음양오행론을 중요하게 다룬 『춘추변로』와 『백호통의』 등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은 대부분 「天文訓」·「墜形訓」·「秦族訓」을 중심으로 二十一訓 전반에 걸쳐 기술되면서, 진한대에 성행한 음양오행론이 『회남자』에 포함되어 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대표할 수 있다.

전국시대 음양오행가의 주요한 저작 중의 하나가 ‘월령’이었다. 고대에 중시한 시령사상이 『詩經』 「關

風·七月」에 단편적이거나 처음 기술되고, 『여씨춘추』 「십이기」와 『예기』 「월령」에 12개월 전체의 ‘월령’이 수록되었는데, 『예기』 「월령」은 『管子』 「幼官」과 후대에 『大戴禮記』 속에 편입된 『夏小正』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sup>3)</sup> 시령은 자연법칙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시령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은 『회남자』 「시칙훈」이 포함하고 있다.

『陰陽五行及其體系』에서 「시칙훈」이 『예기』 「월령」과 『여씨춘추』 「십이기」가 동일한 저작에 근원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음양오행설은 한대에 와서 이미 매우 유행하는 사상체계가 되었는데, 예컨대 동중서의 『春秋繁露』와 『淮南子』의 「天文訓」·「墜形訓」·「時則訓」(「시칙훈」은 『禮記』 「月令」, 『呂氏春秋』 「十二紀」의 첫머리 편과 근원이 동일한데, 이는 마찬가지로 추연의 저작에서 초록했을 가능성이 있다.)·「主術訓」<sup>4)</sup>이 있고, 이 외에 또 『白虎通』과 『黃帝內經』이 있다.<sup>5)</sup>

한대에 음양오행론이 증시되어 저명한 문헌인 『春秋繁露』·『淮南子』·『白虎通』·『黃帝內經』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되었고, 『회남자』 「시칙훈」과 『예기』 「월령」, 그리고 『여씨춘추』 「십이기」의 서두 부분이 상동한 것은 추연의 글을 초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남자』 「시칙훈」에 정월의 시령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맹춘의 달, 초요는 寅을 가리키고, 저녁에는 參宿가 南中하고 새벽에는 尾宿가 남중한다. 그 위치는 동방이고 그 날은 갑을에 해당되며 성덕은 목에 속한다. 그 동물은 비늘 있는 동물이다. 소리는 角이며 律은 太簇에 해당된다. 그 수는 8이고, 그 맛은 신맛이며 냄새는 누린내가 난다. 제사 지내는 곳은 문이며, 제사에는 먼저 비장을 사용한다.<sup>6)</sup>

정월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며, 준수사항을 알려준다. 문장 중에 寅·東·甲乙·木·鱗·角·太簇·八·酸·臚·戶·脾가 모두 음양오행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정월의 월령이라서 모두 목에 배속된다. 목에 비늘이 있는 짐승 鱗을 배속한 것은 인이 청룡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제사에 비장(脾)을 올리는 것은 고문 『尙書』와 당시 시령을 다룬 『예기』 「월령」·『여씨춘추』 「십이기」·『회남자』 「시칙훈」이 비장을 목에 배속한 것을 따른 것이다.<sup>7)</sup>

3) 양계초·풍우란 저, 김홍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283~284쪽.

4) 『회남자』에는 「時則訓」·「天文訓」·「墜形訓」·「泰族訓」에 음양오행 기능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主術訓」에서 음양론은 통치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寇莫大於陰陽, 而枹鼓爲小”라고 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만 있다.

5) 鄭芷人, 『陰陽五行及其體系』, 台北: 文津出版社, 1992, 45쪽, 「董仲舒的陰陽五行說」, “陰陽五行說到了漢代, 已成爲非常流行的思想架構, 例如董仲舒的『春秋繁露』·『淮南子』的「天文訓」·「墜形訓」·「時則訓」(此篇與『禮記』「月令」及『呂氏春秋』「十二紀」首篇同一根源, 可能同是抄錄自鄒衍的著作)·「主術訓」, 此外, 還有『白虎通』·『黃帝內經』.”

6) 『淮南子』 「時則訓」, “孟春之月, 招搖指寅, 昏參中, 旦尾中. 其位東方, 其日甲乙, 盛德在木,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簇, 其數八, 其味酸, 其臭臚, 其祀戶, 祭先脾.”

7) 강성인, 앞의 논문, 2015, 163~166쪽 참조; 김교빈·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아가넷, 2003, 83쪽 참조.

『여씨춘추』 「십이기」의 정월 시령 첫 부분<sup>8)</sup>과 『예기』 「월령」의 정월 시령 첫 부분<sup>9)</sup>이 「시칙훈」과 동일한 근원이고, 시령 전체의 내용도 유사하다. 유사한 이유에 대하여 鄭芷人은 지금은 소실되었지만 당시 추연의 저작을 초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0)</sup> 『회남자』의 「시칙훈」은 『여씨춘추』 「십이기」와 『예기』 「월령」의 시령에 포함된 음양오행론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여씨춘추』는 「십이기」 외에서 음양오행론을 기술한 것은 「應同」의 五行相勝說에 따른 ‘五德終始說’ 뿐이고,<sup>11)</sup> 『예기』는 「월령」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회남자』는 「시칙훈」의 시령에서 음양오행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훈」·「지형훈」·「태족훈」 등에서도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서술하였다.

『음양오행설의 연구』에서도 음양오행에서 『회남자』가 『여씨춘추』를 능가한다고 설명한다.

『회남자』는 천상의 일과 인간의 일을 포괄하고 만물과 만상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러므로 이 책 20편을 저술하니 여기에서는 천지의 이치가 연구되고, 인간의 일이 다루어지며, 제왕의 도가 갖추어진 다. 그 말에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며, 미세한 것도 있고 성긴 것도 있다.”<sup>12)</sup> 그 가운데서 기본골격으로 음양오행의 기능도 보다 정제되고 내재된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呂氏春秋』를 멀리 뛰어넘는다.<sup>13)</sup>

『회남자』가 『여씨춘추』 「십이기」의 방대한 시령 체계를 「시칙훈」에 요약하면서, 일부분 수정하거나 보충한 형태가 되게 하였고,<sup>14)</sup> 「천문훈」·「지형훈」·「태족훈」 등에서 음양오행 기능을 다양하게 수록하여 음양오행 부분에서 『여씨춘추』를 능가한다.

그리고 『회남자』에 함축된 음양오행론의 다양성을 한대에 음양오행론이 기술된 동중서의 『춘추번로』와 반고의 『백호통의』 등과 비교하면서 현대의 음양오행론을 논의하겠다.

동중서는 정신 실질적 측면에서 전술한 『呂氏春秋』의 방향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인사정치와 천도의 운행을 건강부회적으로 결합시키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음양기를 뼈대로 하는 체계의 틀을 밖으로 돌출시키고, 음양오행(天和 왕도정치)의 일치와 상호영향을 강조하는 이른바 천인감응을 이론의 축으로 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전개시켰다.<sup>15)</sup>

8) 『呂氏春秋』 「十二紀」,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太蕤.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9) 『禮記』 「月令」, “孟春之月, 日在營室, 昏參中, 旦尾中. 其日甲乙. 其帝太皞, 其神句芒. 其蟲鱗. 其音角, 律中大蕤. 其數八. 其味酸, 其臭羶. 其祀戶, 祭先脾.”

10) 鄭芷人, 앞의 책, 92쪽 참조.

11) 『呂氏春秋』 「應同」, “凡帝王者之將興也, 天必先見祥乎下民. 黃帝之時, 天先見大蟻大蠹, 黃帝曰「土氣勝」, 土氣勝, 故其色尚黃, 其事則土. 及禹之時, 天先見草木秋冬不殺, 禹曰「木氣勝」, 木氣勝, 故其色尚青, 其事則木. 及湯之時, 天先見金刃生於水, 湯曰「金氣勝」, 金氣勝, 故其色尚白, 其事則金. 及文王之時, 天先見火, 赤烏銜丹書集於周社, 文王曰「火氣勝」, 火氣勝, 故其色尚赤, 其事則火. 代火者必將水, 天且先見水氣勝, 水氣勝, 故其色尚黑, 其事則水.”

12) 『淮南子』 「要略訓」, “故著書二十篇, 則天地之理究矣, 人間之事接矣, 帝王之道備矣, 其言有小有巨, 有微有粗.”

13) 양계초·풍우란 저, 앞의 책, 323쪽.

14) 이석명, 「『회남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研究』 7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145쪽.

15) 양계초·풍우란 저, 앞의 책, 327쪽.

『춘추번로』는 오행의相生과 相剋(相勝<sup>16</sup>)관계를 「五行相生」에서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이라고 오행의 상생을 설명하고, 「五行相勝」에서는 “金勝木,……水勝火,……木勝土,……火勝金,……土勝水.”라고 오행의 상극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백호통의』에서 오행의 상생과 왕상휴수사를 설명한다.

오행은 어떤 것이 더욱 왕한가? 돌아가면서 서로 생하며, 시작과 끝이 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다. 그래서 목이 王하면, 화는 相이 되고, 토는 死가 되며, 금은 囚가 되고, 수는 休가 된다.<sup>17)</sup>

오행의 상생관계를 설명하고, 왕상휴수사를 통하여 오행의 각자 세력의 크기를 결정한다.

『백호통의』에 음양오행론이 다양하게 기술되었는데, 상극과 토왕사계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행에서 서로 해하는 것은, 천지의 성질이, 많음은 적음을 극하니, 수는 화를 극하고, 정교함은 건고함을 극하니, 화는 금을 극하며, 강함은 유함을 극하니, 금은 목을 극하고, 전일함은 산만함을 이기니, 목은 토를 극하며, 실함은 허함을 이기니, 토는 수를 극한다.<sup>18)</sup>

토는 어찌하여 사계의 왕인가? 목은 토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고, 화는 토가 아니면 타지(燬<sup>19</sup>) 못하며, 금은 토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는 토가 아니면 높이 쌓이지 못한다. 토는 미세한 것을 부조하여, 두루 그 도를 이루니, 오행이 바꾸며 생하더라도, 역시 토가 필요하다. 토는 사계의 왕이 되어, 사계에 거하며, 때에 이름 붙이지 않는다.<sup>20)</sup>

『백호통의』에서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토왕사계론을 설명하면서 『춘추번로』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음양오행론을 제시한다.

『춘추번로』의 오행의 생극이론과 『백호통의』의 왕상휴수사와 토왕사계론이 『회남자』에 모두 보이는데, 「천문훈」과 「지형훈」에서 오행의 상생<sup>21)</sup>과 상극<sup>22)</sup>을 설명하고, 「지형훈」에서 왕상휴수사<sup>23)</sup>를 기술하면서

16) 『회남자』·『춘추번로』·『백호통의』 등 한대의 문헌에는 극을 승으로 표시하였다.

17) 『白虎通』 「五行更王相生相勝變化之義」, “五行所以更王何? 以其轉相生, 故有終始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是以木王, 火相, 土死, 金囚, 水休.”

18) 위의 책, “五行所以相害者, 天地之性, 衆勝寡, 故水勝火也. 精勝堅, 故火勝金. 剛勝柔, 故金勝木. 專勝散, 故木勝土. 實勝虛, 故土勝水也.”

19) 반고 저, 신정근 역, 『백호통의』, 소명출판사, 2005, 154쪽 각주, “원래 榮이지만 문외의 판본 교감에 따라 고쳐서 번역한다.”

20) 『白虎通』 「五行更王相生相勝變化之義」, “土所以王四季何? 木非土不生, 火非土不榮, 金非土不成, 水非土不高. 土扶微助衰, 歷成其道, 故五行更生, 亦須土也. 王四季, 居中央, 不名時.”

21) 『淮南子』 「天文訓」,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22) 위의 책, 「墜形訓」, “木勝土, 土勝水, 水勝火, 火勝金, 金勝木.”

23) 위의 책, 「墜形訓」, “木壯, 水老, 火生, 金囚, 土死. 火壯, 木老, 土生, 水囚, 金死. 土壯, 火老, 金生, 木囚, 水死. 金壯, 土老, 水生, 火囚, 木死. 水壯, 金老, 木生, 土囚, 火死.”

壯生老囚死로 표기했다. 『백호통의』의 토왕사계설을 『회남자』에서는 「천문훈」에서 “甲·乙·寅·卯는 木이고, 丙·丁·巳·午는 火이며, 戊·己는 四季의 토다.”<sup>24)</sup>라고 『회남자』만의 특별한 ‘사계설’로 설명한다. 그리고 「천문훈」에서 생·왕·사를 통해 문헌상 처음으로 지지삼합과 십이운성법을 도출하였다.

『회남자』가 한대 초 『춘추번로』나 『백호통의』보다 먼저 저술되었지만 한대의 음양오행론을 대부분 함축할 수 있었던 것은 「시칙훈」에서 시령을 기술함으로써 제 사물을 음양오행에 배속하여 음양오행 기능에 맞는 시령을 제정하고, 『여씨춘추』와 『예기』에는 없는 五位·六合·制度를 기술하여 음양오행의 기능을 보강했으며, 「천문훈」·「지형훈」에서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토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토의 회합과 십이운성법 및 토의 용사를 기술하고, 또한 五行相治를 통하여 오행의 待對關係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내포하여 음양오행론에서 진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회남자』의 주요 음양오행론

『회남자』의 음양오행론은 「시칙훈」의 시령에서 방향·물질·숫자·맛·냄새·五祀·五藏·五色·가족·관리·樹木·制度 등을 오행에 배속하였고,<sup>25)</sup> 「천문훈」·「지형훈」·「태족훈」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 및 오행의 성쇠를 나타내는 왕상휴수사와 오행의 相治 이론이 수록되었으며, 그리고 24절기와 육십갑자 간지력이 정립되고 寅月歲首가 시행되었다.<sup>26)</sup> 본 절에서는 오행의 생극제화, 즉 중화작용에 관계되는 주요 음양오행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1. 오행의 生剋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론은 음양오행론의 기초이론으로 春秋時期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龐樸은 「五行思想三題」에서 당시 사람들의 이름과 字에 오행상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7)</sup> 그리고 王引之의 『經義述文』 「春秋名字解詁」에 名과 字의 관계를 오행의 상생이론으로 설명한다.<sup>28)</sup>

秦나라의 白丙은 字가 乙인데, 丙은 火이고 剛日이며, 乙은 木이고 柔日이다. 이름이 丙이고 자가 乙인 것은 화가 목에서 생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또 剛柔가 서로 돕도록 한 것이다. 鄭나라의 石突는

24) 위의 책, 「天文訓」, “甲乙寅卯, 木也, 丙丁巳午, 火也, 戊己, 四季土也.”

25)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54쪽 도표 참조.

26)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59~63쪽 참조.

27) 龐樸, 「五行思想三題」, 『山東大學學報』, 1964년 제1기(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11쪽에서 재인용).

28)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4, 80쪽; 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11쪽.

字가 甲父인데, 쫓는 水이고 柔日이며, 甲은 木이고 剛日이다. 이름이 쫓이고 자가 甲인 것은 목이 수에서 생하는 것을 취한 것이고, 또 剛柔가 서로 돕도록 한 것이다.<sup>29)</sup>

이름과 字가 서로 생하는 이치를 사용하였는데, 앞부분은 字가 이름을 생하고, 뒷부분은 이름이 字를 생하게 하여 이름과 자가 서로 돕는 오행의 상생이론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管子』 「五行」에서 1년 중 오행의 72일 用事를 설명하면서 “甲子,……丙子,……戊子,……庚子,……壬子.”로 오행의 次序를 상생에 맞게 처음 배열함으로써 목 → 화 → 토 → 금 → 수의 상생관계가 성립되었다.

오행의 상극이론은 『尙書』 「大禹謨」에 “덕은 정치를 잘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정치는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습니다. 수·화·금·목·토·곡을 잘 다스리십시오(於! 帝念哉, 德惟善政, 政在養民. 水·火·金·木·土·穀).”라고 오행을 언급하면서 수 → 화 → 금 → 목 → 토를 상극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리고 전국시대 鄒衍의 五德終始說<sup>30)</sup>이 五行相勝說에 근거하면서 이 때 이미 오행의 상극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씨춘추』 「應同」에도 五行相勝說에 따른 五德終始說<sup>31)</sup>을 기술하여 오행의 상극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나 한대 이전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를 이해하고 사용은 하였으나 공식화하여 설명되지는 않았는데, 『회남자』 「천문훈」에서 “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며, 화는 토를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한다(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라고 오행의 相生關係를 설명하고, 「지형훈」에서 “목이 토를 이기고, 토는 수를 이기며, 수가 화를 이기고, 화는 금을 이기며, 금이 목을 이긴다(木勝土, 土勝水, 水勝火, 火勝金, 金勝木).”라고 오행의 相剋關係를 공식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오행의 생극관계가 완성되었다.

## 2. 十二運星法과 地支三合

십이운성법은 오행의 生長盛衰에 따른 힘의 변화를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生死所·十二運程法·十二胞胎法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천문훈」에서 오행의 생사과정은 기술하면서 지지 삼합을 통하여 오행의 십이운성법을 설명한다.

木은 亥에서 생하여 卯에서 壯旺<sup>32)</sup>하고 未에서 죽으며 三辰이 모두 목이다. 火는 寅에서 생하여 午에서 장하고 戌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화이다. 土는 午에서 생하여 戌에서 장하고 寅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토이다. 金은 巳에서 생하여 酉에서 장하고 丑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금이다. 水는 申에서 생하여 子에서 장하고 辰에서 죽으며 삼신이 모두 수이다.<sup>33)</sup>

29) 王引之, 『經義述文』 「春秋名字解詁」, “秦白丙字乙: 丙, 火也, 剛日也, 乙, 木也, 柔日也: 名丙字乙者, 取火生于木, 又剛柔相濟也. 鄭石癸字甲父: 癸, 水也, 柔日也, 甲, 木也, 剛日也: 名癸字甲者, 取木生于水, 又剛柔相濟也.”

30) 劉向, 『七略』, “鄒子有從始五德, 從所不勝: 土德後, 木德從之, 金德次之, 火德次之, 水德次之.”

31) 본문 각주 11 참조.

32) 현대명리학에서 사용하는 旺字를 『淮南子』에서는 壯字로 표시했다.

33) 『淮南子』 「天文訓」, “木生于亥, 壯于卯, 死于未. 三辰皆木也. 火生于寅, 壯于午, 死于戌, 三辰皆火也. 土生于午, 壯于戌, 死

오행의 生·旺·墓를 합하면 지지 삼합이 되는데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오행의 生·旺·墓[三合]

	木	火	土	金	水
生	亥	寅	午	巳	申
旺旺	卯	午	戌	酉	子
墓死	未	戌	寅	丑	辰

『천문훈』에 나타난 生·壯·死는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십이운성법에 해당되며 문헌상에 처음 기술되었다.<sup>34)</sup> 현대음양오행 이론과 비교하면 生·旺·墓를 生·壯·死로 표기하여 용어의 차이가 있다. 『천문훈』의 ‘旺’은 ‘旺’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死’와 ‘墓’는 의미가 다른데도 같은 위치에 쓰인 것은 ‘死’를 죽어서 묻힌다는 ‘墓’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음양오행론의 지지 삼합 이론에 해당하는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외에 午戌寅 合土를 추가하고 있다.<sup>35)</sup> 아마도 오덕중시설의 영향으로 한대에 토를 중시하는 풍조가 합토를 기술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남자』에서 오행의 생사를 통하여 삼합이론과 십이운성법을 처음으로 기술하였고, 삼합이론에서 오술인을 합토로 인식한 것은 『회남자』가 유일하다.

### 3. 육합

地支六沖에 해당하는 것을 『회남자』에서 六合이라 칭하면서, 『時則訓』에서 “육합은 맹춘과 맹추가 합이고, 중춘과 중추가 합이며, 계춘과 계추가 합이며, 맹하와 맹동이 합이며, 중하와 중동이 합이며, 계하와 계동이 합이다.”<sup>36)</sup>라고 육합을 언급하면서 합이 되는 달들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寅申·卯酉·辰戌·巳亥·午子·未丑 여섯 가지의 待對關係를 육합이라 칭했다.

육합은 『춘추변료』에는 언급되지 않고, 『백호통』 「五行」에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는 것은 무엇을 본 뜬 것인가? 오행육합을 본 뜬 것이다(人有五藏六府何法? 法五行六合也).”라고 육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단어만 사용하였고, 『黃帝內經』 「生氣通天論」에도 “근본이 음양천지 사이에 있고, 육합의 안이다(本於陰陽天地之間, 六合之內).”라고 육합이란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설명한 육합은 현대의 地支六合

于寅, 三辰皆土也. 金生于巳, 壯于酉, 死于丑. 三辰皆金也. 水生于申, 壯于子, 死于辰, 三辰皆水也.”

34)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 서강대 철학연구소, 2012, 234쪽 참조.

35)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65쪽.

36) 『淮南子』 「時則訓」,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仲春與仲秋爲合, 季春與季秋爲合, 孟夏與孟冬爲合, 仲夏與仲冬爲合, 季夏與季冬爲合.”

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었고, 『백호통』과 『황제내경』의 육합이 의미하는 것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지지 육합이라기 보다 천지사방 즉 우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sup>37)</sup>

『회남자』를 포함하여 한대까지의 문헌에는 오행에서 沖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아직 한대에는 합충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 4. 오행의 旺相休囚死

「지형훈」에서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왕상휴수사를 설명하고 있다.

목이 壯하면 수는 老하고 화는 生하며 금은 囚하고 토는 死한다. 화가 壯하면 목은 老하고 토는 生하며 수는 囚하고 금은 死한다. 토가 壯하면 화는 老하고 금은 生하며 목은 囚하고 수는 死한다. 금이 壯하면 토는 老하고 수는 生하며 화는 囚하고 목은 死한다. 수가 壯하면 금은 老하고 목은 生하며 토는 囚하고 화는 死한다.<sup>38)</sup>

旺相休囚死를 壯生老囚死로 설명하고 있다. 寅月에서 丑月까지 12월을 기준하여 旺은 월과 동일한 오행이고, 相은 월에서 生을 받는 오행이며, 休는 월을 생하는 오행이고, 囚는 월을 剋하는 오행이며, 死는 월에게 극을 받는 오행이다. 그래서 寅·卯月에는 목이 旺相이 되고, 火가 相生이 되며, 수가 休老가 되고, 금이 囚가 되며, 토는 死가 된다. 그리고 辰·未·戌·丑月에는 토가 旺이 되고, 목이 囚가 되며, 수가 死가 되어 다른 四行의 例와 같이 해석한다. 왕상휴수사는 氣勢의 旺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데 힘의 세기는 旺에서부터 순서대로이다.

#### 5. 五行相治

「지형훈」에서 오행이 서로 다스리고 다스려지는 待對關係를 오행상치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水로써 土를 화합하고, 土로써 火를 화합하며, 火로써 金을 변화시키고, 金으로써 木을 다스리며, 木은 다시 土로 돌아간다. 五行이 서로 다스려져서 만물의 역량이 만들어져 사용되는 것이다.<sup>39)</sup>

五行의 보완·견제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相生·相剋을 통하여 五行이 서로 다스리고 다스려져 만물의 역

37) 김만태, 앞의 논문, 210~216쪽 참조; 반고 저, 신정근 역, 앞의 책, 160쪽 각주 48, “六合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천지를 말한다.”

38) 『淮南子』「墜形訓」, “木壯, 水老, 火生, 金囚, 土死. 火壯, 木老, 土生, 水囚, 金死. 土壯, 火老, 金生, 木囚, 水死. 金壯, 土老, 水生, 火囚, 木死. 水壯, 金老, 木生, 土囚, 火死.”

39) 위의 책, “是故以水和土, 以土和火, 以火化金, 以金治木, 木復反土. 五行相治, 所以成器用.”

량과 기능이 만들어져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문장 중에서 “수로써 토를 화합하고, 토로써 화를 화합하며(是故以水和土, 以土和火).”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원래 오행의 생극이론에서는 수는 토에게 극을 당하고, 토는 화에게 생을 받는데, 以水和土, 以土和火라고 한 것은 『오행대의』 「論生」의 “그래서 未土와 午火가 합하고, 子水와 丑土가 합한다(故未與午合……故子與丑合).”라고 하는 地支六합의 天地四方 중에 천지에 해당하는 未午 合火와 子丑 合土에 상응한다. 아직 『회남자』에서 지지육합 이론이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오행 상치를 통하여 이미 인식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한대에 성행한 음양오행사상의 영향으로 『회남자』에서 시령에 내포된 음양오행 개념과 더불어 체계적인 음양오행 이론을 함축할 수 있었다. 시령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諸事物의 분류를 위한 오행 배속이 이루어졌고,<sup>40)</sup>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 관계, 오행의 생사과정을 통한 지지삼합과 12운성법, 그리고 오행의 성쇠를 판단하는 왕상후수사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음양오행 기능이 다양하게 수록되었는데, 24절기가 완성되어 『회남자』에 처음으로 출현하며,<sup>41)</sup> 육십갑자 간지력<sup>42)</sup>이 정립되고 寅月歲首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한대 문헌에는 오행의 합충 이론이 아직 출현하지 않는다.

#### IV. 음양오행론에서 『오행대의』의 위상

전국시대 오행의 큰 스승 추연과 한대 오행의 대가 劉向·劉歆 부자 등이 오행을 해설한 저작은 원본이 이미 사라지거나 흩어져, 二十四史 중에 『漢書』 「五行志」 1권, 『後漢書』 「오행지」 6권, 『晉書』 「오행지」 3권, 『宋書』 「오행지」 5권, 『南齊書』 「오행지」 1권, 『隋書』 「오행지」 2권, 『舊唐書』 「오행지」 1권, 『新唐書』 「오행지」 3권, 『舊五代史』 「오행지」 1권, 『宋史』 「오행지」 7권, 『金史』 「오행지」 1권, 『元史』 「오행지」 2권, 『明史』 「오행지」 3권에 음양오행론이 수록되었으나 모두 오행설과 그 역사를 설명하는 저술이 아니라 災異現狀을 기록한 저작이다. 古人이 오행학설을 전문적으로 해석한 저술로 오늘날까지 완전히 보존된 것은 『오행대의』만이 있을 뿐이다.<sup>43)</sup>

『오행대의』에는 간지의 음양배합과 오행의 釋名으로부터 諸事物의 오행배속 및 性情·政治 등의 人心과 人事, 그리고 수대 이전까지의 음양오행 이론이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오행의 生剋 合沖 이론이 완성되어 오행의 생극제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생극제화에 관련된 음양오행론을 중심으로 논술하겠다.

「論相生」에서 각종 문헌을 인용하여 “자연에는 오행이 있는데, 목·화·토·금·수가 이것이다. 목이 화

40) 강성인, 앞의 논문, 2014, 51~56쪽 참조.

41) 홍성국, 『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 한솜, 2010, 72~73쪽 참조.

42) 『淮南子』 「天文訓」, “壬午冬至, 甲子受制. ……七十二日, 丙子受制. ……七十二日, 戊子受制. ……七十二, 庚子受制. ……七十二日, 壬子受制. ……七十二日而歲終. 庚午受制, 歲遷六日, 以數推之, 十歲而復至甲子.”

43) 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92쪽.

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목을 생한다.”<sup>44)</sup>라고 하고, 『論相剋』에서는 “힘이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목이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가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며, 금이 목을 극한다.”<sup>45)</sup>라고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설명하면서, 상극에 대하여 한대의 諸文獻에서 ‘勝’字로 표시한 것을 『오행대의』에서는 ‘剋’字를 사용하였다.

오행의 생사에 대하여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사용하는 오행의 십이운성법으로 설명하면서, 토의 십이운성은 목·화·금·수와 다르게 설명한다.

토는,亥에서 氣를 받고,子에서 胎가 되며,丑에서 養이 되어.寅에서 寄行하고,卯에서 長生이 되어,辰에서 沐浴하며,巳에서 冠帶하고,午에서 臨官이 되어,未에서 王이 되며,申에서 病衰하고,酉에서 死하여,戌에서 葬한다.<sup>46)</sup>

토의 生長盛衰가 초반 부분은 火土同宮說에 입각한 것 같으나, 長生과 旺地 부분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12운성을 설명하면서, 土 중에 未土를 旺地로 해석하였다.

토 전체에 대하여는 앞의 설명과 같이 生死所를 해석하면서, 특이하게 『五行書』를 인용하여 토의 地支인 進술축미에 대하여 각각 11단계로 生長성쇠를 설명한다.<sup>47)</sup>

辰은 子에서 生하여 辰에서 王旺을 王으로 표기하고 未에서 葬墓를 葬으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木의 餘氣인 辰土가 관장하는 四時의 春木을 기준하여 木의 생지가 되는 水의 旺地인 子에서 생하고 辰에서 왕하여 木의 墓地가 되는 未에서 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未·戌·丑土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未土는 夏[巳·戌土는 秋[金]·丑土는 冬[水]을 기준하여 生·旺[王]·墓[葬]의 논리를 전개하였다.<sup>48)</sup>

십이운성법은 대부분 천간 오행에 대한 것인데, 토의 지지인 진미술축에 대하여 각각 십이운성을 정하여 설명한 것이 독특하다.

44) 蕭吉 著, 錢杭 點校, 『五行大義』,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論相生」, “天有五行, 木·火·土·金·水是也.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45) 위의 책, 「論相剋」, “以其力強能制弱, 故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46) 위의 책, 「論生死所」, “土, 受氣於亥, 胎於子, 養於丑, 寄行於寅, 生於卯, 沐浴於辰, 冠帶於巳, 臨官於午, 王於未, 衰病於申, 死於酉, 葬於戌.”

47) 위의 책, “辰土受氣於申·酉, 胎於戌, 養於亥, 生於子, 沐浴於丑, 冠帶於寅, 臨官於卯, 王於辰, 衰病於巳, 死於午, 葬於未. 未土受氣於亥·子, 胎於丑, 養於寅, 生於卯, 沐浴於辰, 冠帶於巳, 臨官於午, 王於未, 衰病於申, 死於酉, 葬於戌. 戌土受氣於寅·卯, 胎於辰, 養於巳, 生於午, 沐浴於未, 冠帶於申, 臨官於酉, 王於戌, 衰病於亥, 死於子, 葬於丑. 丑土受氣於巳·午, 胎於未, 養於申, 生於酉, 沐浴於戌, 冠帶於亥, 臨官於子, 王於丑, 衰病於寅, 死於卯, 葬於辰.”

48) 강성인, 앞의 논문, 2015, 161쪽.

〈표 3〉 四季土의 生長성쇠

	受氣	胎	養	生	沐浴	冠帶	臨官	王	衰病	死	葬
辰	申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未	亥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戌	寅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丑	巳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論四時休王」에서는 오행의 盛衰에 대하여 오행의 자체 휴왕과 천간·지지의 휴왕, 그리고 팔괘의 휴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오행과 十干·十二支의 旺(旺)<sup>49)</sup>相休囚死를 계절에 상관하여 盛衰를 설명한다.

오행체의 휴왕은, 봄에는 목이 왕이 되고, 화는 상이 되며, 수는 휴가 되고, 금은 수가 되며, 토는 사가 된다.……천간과 지지의 휴왕은, 봄에는 갑·을과 인·묘가 왕이 되고, 병·정과 사·오는 상이 되며, 임·계와 해·자가 휴가 되고, 경·신과 신·유는 수가 되며, 무·기와 진·술·축·미는 사가 된다.<sup>50)</sup>

위의 오행과 十干·十二支를 계절에 대입하여 왕상휴수사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행·십간·십이지 왕상휴수사

		王	相	休	囚	死
春	오행	木	火	水	金	土
	십간	甲乙	丙丁	壬癸	庚辛	戊己
	십이지	寅卯	巳午	亥子	申酉	辰戌丑未
夏	오행	火	土	木	水	金
	십간	丙丁	戊己	甲乙	壬癸	庚辛
	십이지	巳午	辰戌丑未	寅卯	亥子	申酉
六月	오행	土	金	火	木	水
	십간	戊己	庚辛	丙丁	甲乙	壬癸
	십이지	辰戌丑未	申酉	巳午	寅卯	亥子
秋	오행	金	水	土	火	木
	십간	庚辛	壬癸	戊己	丙丁	甲乙
	십이지	申酉	亥子	辰戌丑未	巳午	寅卯
冬	오행	水	木	金	土	火
	십간	壬癸	甲乙	庚辛	戊己	丙丁
	십이지	亥子	寅卯	申酉	辰戌丑未	巳午

49) 현대 음양오행론에서 사용하는 旺字를 『五行大義』에서는 王字로 표시하였다.

50) 蕭吉, 앞의 책, 「論四時休王」, “五行體休王者, 春則木王, 火相, 水休, 金囚, 土死.……支干休王者, 春則甲乙·寅卯王, 丙丁·巳午相, 壬癸·亥子休, 庚辛·申酉囚, 戊己·辰戌丑未死.”

춘하추동 사시에서 季夏 未月을 포함한 오시체계를 기준으로 오행 왕상휴수사의 변화에 따라 기세의 성쇠를 설명하였다.

팔괘의 휴왕은 “입춘에는 간이 왕, 진은 상, 손이 태, 리는 몰, 곤이 사, 태가 수, 건은 폐, 감이 휴이다. ……”<sup>51)</sup>라고 설명하면서 易의 기본괘인 팔괘를 계절에 배속하여 王·相·胎·沒·死·囚·廢·休로 구분하였는데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팔괘 휴왕<sup>52)</sup>

	王	相	胎	沒	死	囚	廢	休
입춘	艮	震	巽	離	坤	兌	乾	坎
춘분	震	巽	離	坤	兌	乾	坎	艮
입하	巽	離	坤	兌	乾	坎	艮	震
하지	離	坤	兌	乾	坎	艮	震	巽
입추	坤	兌	乾	坎	艮	震	巽	離
추분	兌	乾	坎	艮	震	巽	離	坤
입동	乾	坎	艮	震	巽	離	坤	兌
동지	坎	艮	震	巽	離	坤	兌	乾

팔괘가 입춘·춘분·입하·하지·입추·추분·입동·동지의 八節에 따라 변하는 힘의 세기를 王·相·胎·沒·死·囚·廢·休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합에 대하여 천간 합과 지지육합을 구분하여 기술하면서 합이 되는 이치를 설명한다.

천간의 합이란, 기가 갑의 처가 되어 갑과 기는 합이 되고, 신이 병의 처가 되어 병과 신이 합이 되며, 계는 무의 처가 되어 계와 무가 합이 되고, 을은 경의 처가 되어 을과 경이 합이 되며, 정은 임의 처가 되어 임과 정은 합이 된다.<sup>53)</sup>

十干이 서로 甲己, 丙辛, 戊癸, 乙庚, 丁壬으로 만나면 천간 합이 형성된다.

천간 합에 이어 지지육합에 대하여 설명한다.

지지의 합은, 일월이 운행하다가 회합하는 곳을 말한다. 정월에는 일월이 추자의 자리에 모인다. 추

51) 위의 책, “八卦休王者, 立春, 艮王, 震相, 巽胎, 離沒, 坤死, 兌囚, 乾廢, 坎休…….”

52) 이동아,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66쪽.

53) 蕭吉, 앞의 책, 「論合」, “干合者, 己爲甲妻, 故甲與己合. 辛爲丙妻, 故丙與辛合. 癸爲戊妻, 故癸與戊合. 乙爲庚妻, 故乙與庚合. 丁爲壬妻, 故壬與丁合.”

자는 亥方이고, 일명 豕韋라고 한다. 이 때는 북두의 자루가 寅을 가리키므로 인과 해가 합이 된다.  
 ……묘와 술이 합이 된다. ……진과 유가 합이 된다. ……사와 신이 합이 된다. ……오와 미가 합이 된다.  
 ……미와 오가 합이 된다. ……신과 사가 합이 된다. ……유와 진이 합이 된다. ……술과 묘가 합이 된다.  
 ……해와 인이 합이 된다. ……자와 축이 합이 된다. ……축과 자가 합이 된다.<sup>54)</sup>

十二支가 서로 寅亥, 卯戌, 辰酉, 巳申, 午未, 子丑이 합을 이루어 지지육합이 완성된다.

오행의 중화작용에 필요한 합이 완성에 이어 충에 대하여 衝破란 단어를 사용하여 천간과 지지의 충을 설명하면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충파가 되어 영향이 크다고 한다.

간이 충파하는 것은, 갑과 경이 충파하고, 을과 신이 충파하며, 병과 임이 충파하고, 정과 계가 충파하며, 무와 임, 갑과 무, 을과 기가 충파한다. 이것은 모두가 상대를 마주보아 충파하니, 본체가 서로를 극하는 것으로 더욱 중한 것이 된다. 지가 충파하는 것은, 자와 오가 충파하며, 축과 미가 충파하고, 인과 신이 충파하며, 묘와 유가 충파하고, 진과 술이 충파하며, 사와 해가 충파하는데, 이것 역시 서로 마주하는 것을 취하였다.<sup>55)</sup>

서로 마주보는 간지의 충파는 오행상극의 이치에서 파생된 것이다. 『오행대의』에서 천간과 지지의 합과 충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이 완전하게 정립되었다.

『오행대의』에는 생극합충 이론의 완성뿐만 아니라, 刑과 害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論刑」에서 支自相刑·支刑在干·干刑在支의 三種刑을 설명한다.

지지기리 서로 형을 하는 것은,子是卯에서 刑하고, 묘는 자에서 형하며, 丑은戌에서 형하고, 술은未에서 형하며, 미는 축에서 형하고, 寅은巳에서 형하며, 사는申에서 형하고, 신은인에서 형하며, 辰·午·酉·亥는 스스로 형이 된다. ……천간이 지지를 형하는 것은, 인은庚에서 형하고, 묘는辛에서 형하며, 진은甲에서 형하고, 사는癸에서 형하며, 오는壬에서 형하고, 미는乙에서 형하며, 신은丙에서 형하고, 유는丁에서 형하며, 술은갑에서 형하고, 해는己에서 형하며, 자는戊에서 형하고, 축은을에서 형이 된다. ……지지가 천간을 형하는 것은, 갑은신에서 형이 되고, 을은유에서 형이 되며, 병은자에서 형이 되고, 정은해에서 형이 되며, 무는인에서 형이 되고, 기는묘에서 형이 되며, 경은오에서 형이 되고, 신은사에서 형이 되며, 임은진과 술에서 형이 되고, 계는축과 미에서 형이 된다.<sup>56)</sup>

54) 위의 책, “支合者, 日月行次之所合也. 正月日月會於諫訾之次, 諫訾, 亥也, 一名豕韋, 斗建在寅, 故寅與亥合. ……故卯與戌合. ……故辰與酉合. ……故巳與申合. ……故午與未合. ……故未與午合. ……故申與巳合. ……故酉與辰合. ……故戌與卯合. ……故亥與寅合. ……故子與丑合. ……故丑與子合.”

55) 위의 책, 「論衝破」, “干衝破者, 甲庚衝破, 乙辛衝破, 丙壬衝破, 丁癸衝破, 戊壬, 甲戌, 乙己亦衝破, 此皆對衝破, 亦本體相剋, 彌爲重也. 支衝破者, 子午衝破, 丑未衝破, 寅申衝破, 卯酉衝破, 辰戌衝破, 巳亥衝破, 此亦取相對.”

56) 위의 책, 「論刑」, “支自相刑者, 子刑在卯, 卯刑在子, 丑刑在戌, 戌刑在未, 未刑在丑, 寅刑在巳, 巳刑在申, 申刑在寅, 辰··午·酉·亥各自刑. ……干刑支者, 寅刑在庚, 卯刑在辛, 辰刑在甲, 巳刑在癸, 午刑在壬, 未刑在乙, 申刑在丙, 酉刑在丁, 戌刑在甲, 亥刑在己, 子刑在戊, 丑刑在乙. ……支刑干者, 甲刑在申, 乙刑在酉, 丙刑在子, 丁刑在亥, 戊刑在寅, 己刑在卯, 庚刑在午,

支自相刑은 두 개의 지지로 이루어지는 相刑 子卯, 세 개의 지지로 구성되는 三刑 丑戌未와 寅巳申,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自刑 辰辰·午午·酉酉·亥亥가 되고, 天干이 地支를 형하는 것(干刑支者)은 천간에서 지지를 형하는 오행인 寅庚·卯辛·辰甲·巳癸·午壬·未乙·申丙·酉丁·戌甲·亥己·子戊·丑乙이 되며, 지지가 천간을 형하는 것(支刑干者)은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오행인 甲申·乙酉·丙子·丁亥·戊寅·己卯·庚午·辛巳·壬辰·壬戌·癸丑·癸未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支自相刑은 활용하고 있으나 支刑在干과 干刑在支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십이지지가 서로 만나서 험가 되는 여섯 가지 경우를 설명한다.

서로 해하는 것은 십이신에서 역행하여 서로 만나 돌씩 서로 해치므로 여섯 가지 해라고 한다. 술과 유, 해와 신, 자와 미, 축과 오, 인과 사, 묘와 진이 육해이며, 살상한다는 뜻이다.<sup>57)</sup>

십이지지 酉戌·申亥·子未·丑午·寅巳·卯辰을 六害로 지정했는데, 이는 지지육합에서 쌍방 중 일방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합하는 일방을 초과하니 해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행대의』에서 다른 문헌에서는 소실되어 전무한 오행이 상생하는 근본원리에 대하여 『白虎通』에 있었던 문장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목이 화를 낳는다는 것은 목의 성질이 온난하기 때문이다. 화가 그곳에 숨어 있다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비비면 나타나니, 따라서 목이 화를 낳는 것이다. 화가 토를 낳는 것은 화는 뜨거우니 목을 태울 수 있고, 목이 타면 재가 되는데 재가 바로 토이니, 따라서 화가 토를 낳는 것이다. 토가 금을 낳는 것은 금은 돌에 섞여 산에 있는데 물기가 적서져 금이 생기며, 흙이 모이면 산을 이루고 산에는 돌이 있으므로 토는 금을 낳는 것이다. 금이 수를 낳는 이유는 소음의 기는 윤택하여 물기가 흐르는데, 쇠를 녹이면 물의 상태가 되어 산의 구름이 그에 의해 윤기가 있고, 따라서 금이 수를 낳는다. 수가 목을 낳는 이유는 목이 물의 윤기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니 따라서 수는 목을 낳는다.<sup>58)</sup>

목생화·화생토·토생금·금생수·수생목이 성립되는 이치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현재 전해지는 『백호통』에는 소실되어 없다. 오행의 상생원리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전하는 진한시대의 문헌에는 이를 설명하는 문장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오행대의』가 인용하는 『백호통』의 사라진 문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sup>59)</sup>

辛刑在巳, 壬刑在辰戌, 癸刑在丑未.”

57) 위의 책, 「論害」, “相害者, 逆行相遇, 於十二辰兩兩相害, 名爲六害. 戌與酉, 亥與申, 子與未, 丑與午, 寅與巳, 卯與辰, 是六害也, 是殺傷之義.”

58) 위의 책, 「論相生」, “『白虎通』云: 木生火者, 木性溫暖, 火伏其中, 鑽灼而出, 故木生火; 火生土者, 火熱, 故能焚木, 木焚而成灰, 故火生土; 土生金者, 金居石依山, 津潤而生, 聚土成山, 山必生石, 故土生金; 金生水者, 少陰之氣潤澤流津, 銷金亦爲水, 所以山雲而從潤, 故金生水; 水生木者, 因水潤而能生, 故水生木也.”

59) 은남근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민문화사, 2000, 191~192쪽 참조.

『오행대의』에는 오행과 간지의 명을 논하는 「釋名」으로부터 五色·音聲·氣味·藏府·五常·五事 등의 諸事物의 오행배속과 律呂·七政·八風을 비롯하여 五靈과 禽獸, 그리고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관계되는 모든 음양오행 기능을 다루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오행의 상생 원리를 설명한 것과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이 완성된 것이다. 오행의 상생원리를 설명한 문헌은 『오행대의』가 유일하고, 오행의 생극제화를 완성하는 합충 이론이 온전하게 기술된 문헌이 전무했는데, 『오행대의』에서 천간 합과 지지 합(지지회합·지지육합)을 설명하고, 충에서 천간 충과 지지 충을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합충이론을 온전하게 정립하였으며, 나아가 형해 이론까지 서술하여 생극제화의 근간이 완성되었다.

## V.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회남자』에서 논의한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諸事物의 오행배속 등 대부분의 음양오행론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그러나 『오행대의』에서는 『회남자』에서 성립되지 않았던 오행의 합충 이론과 형해이론이 확립되어 생극이론과 더불어 生剋制化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회남자』에서 이론적으로 모순이 있었던 토의 會合과 십이운성법 및 토의 用事가 정리되었다.

### 1. 오행의 合沖

『회남자』 「시칙훈」에서 “육합은 맹춘과 맹추가 더불어 합이 되고, 중춘과 중추가 더불어 합이 되며, 계춘과 계추가 더불어 합이 되고, 맹하와 맹동이 더불어 합이 되며, 중하와 중동이 더불어 합이 되고, 계하와 계동이 더불어 합이 된다.”<sup>60)</sup>라고 육합을 언급하면서 합이 되는 달들 사이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寅申·卯酉·辰戌·巳亥·午子·未丑 여섯 가지의 待對關係를 육합이라 칭했다. 「시칙훈」에서 말하는 六合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地支六沖에 해당되는데, 한대에는 오행에 沖이란 의미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행대의』에서는 현대음양오행 이론의 沖을 衝破로 설명하였다.

천간의 충파로는 甲庚, 乙辛, 丙壬, 丁癸, 戊壬, 甲戊, 乙己가 있고,……지지의 충파로는 子午, 丑未, 寅申, 卯酉, 辰戌, 巳亥가 있으며, 간지의 충파는 서로 대응하는 상극관계를 취한 것이다.<sup>61)</sup>

천간 충에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다섯 종류의 충(甲庚·乙辛·丙壬·丁癸·戊壬)에다가 甲戊·乙己를 더

60) 『淮南子』 「時則訓」, “六合. 孟春與孟秋爲合, 仲春與仲秋爲合, 季春與季秋爲合, 孟夏與孟冬爲合, 仲夏與仲冬爲合, 季夏與季冬爲合.”

61) 蕭吉, 앞의 책, 「論衝破」, “干衝破者, 甲庚衝破, 乙辛衝破, 丙壬衝破, 丁癸衝破, 戊壬, 甲戊, 乙己亦衝破,……支衝破者, 子午衝破, 丑未衝破, 寅申衝破, 卯酉衝破, 辰戌衝破, 巳亥衝破, 此亦取相對.”

하여 일곱 종류로 기술하였고, 『회남자』에서 언급한 육합을 서로 마주 대응하며 相廻하는 지지충파로 해석하였다.

천간 합에 대하여 『회남자』에는 없으나 『백호통』에 “일설에 목이 금을 두려워하는데, 금은 경을 처로 삼으며 경의 변화를 받는다(一說木畏金, 金之妻庚, 受庚之化).”라는 短文이 있는데, 이를 『白虎通疏證』 주석에서 “문장에 잘못이 있다(文有訛).”라고 하면서 五行相雜의 뜻으로 설명하였다.

고찰하건대 『五行大義』 卷三에서 『白虎通』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일설에서 말하길, 갑목이 금을 두려워하여, 을목으로 경금의 처가 되게 하여, 경금의 변화를 받으며,”……『大義』에서 『오행서』를 인용하여 말하면, “갑목이 여동생 을목을 경금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고, 병화가 여동생 정화를 임수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며, 무토가 여동생 기토를 갑목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고, 경금이 여동생 신금을 병화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하며, 임수가 여동생 계수를 무토에게 시집보내 처가 되게 한다.” 모두가 五行相雜의 뜻이다.<sup>62)</sup>

『백호통소증』의 주석 앞부분 『大義』는 『오행대의』를 일컬으며, 『백호통』의 애매한 짧은 문장을 주석한 내용은 결국 『오행대의』에 의거하여 설명한 것이고, 주석 말미의 오행상잡도 『오행대의』의 「五行相雜」편을 말한다. 주석내용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으로 乙庚合金·丁壬合木·甲己合土·丙辛合水·戊癸合火 천간 합으로 『오행대의』에 근거한 것이 된다.

『오행대의』에서는 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干合과 지지육합의 이론을 정립하였다.

천간의 합이란, 기가 갑의 처가 되어 갑과 기는 합이 되고, 신이 병의 처가 되어 병과 신은 합이 되며, 계는 무의 처가 되어 계와 무가 합이 되고, 을은 경의 처가 되어 을과 경이 합이 되며, 정은 임의 처가 되어 임과 정은 합이 된다.……지지의 합은, 일월이 운행하다가 회합하는 곳을 말한다. 정월에는 일월이 추자의 자리에 모인다. 추자는 亥方이고, 일명 豕韋라고 한다. 이 때는 북두의 자루가 寅을 가리키므로 인과 해가 합이 된다.……묘와 술이 합이 된다.……진과 유가 합이 된다.……사와 신이 합이 된다.……오와 미가 합이 된다.……미와 오가 합이 된다.……신과 사가 합이 된다.……유와 진이 합이 된다.……술과 묘가 합이 된다.……해와 인이 합이 된다.……자와 축이 합이 된다.……축과 자가 합이 된다.<sup>63)</sup>

진한대 문헌에는 천간 합과 지지육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없다. 『회남자』에서 오행상치를 들어 설명

62) 班固 著,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193쪽. “案『大義』三引『白虎通』云, ‘一說云, 甲木畏金, 以乙妻庚, 受庚之化,’……『大義』引『五行書』云, ‘甲以女弟乙嫁庚爲妻, 丙以女弟丁嫁壬爲妻, 戊以女弟己嫁甲爲妻, 庚以女弟辛嫁丙爲妻, 壬以女弟癸嫁戊爲妻.’ 皆即五行相雜之義也.”

63) 蕭吉, 앞의 책, 「論合」, “干合者, 己爲甲妻, 故甲與己合. 辛爲丙妻, 故丙與辛合. 癸爲戊妻, 故癸與戊合. 乙爲庚妻, 故乙與庚合. 丁爲壬妻, 故壬與丁合.……支合者, 日月行次之所合也. 正月日月會於謙訾之次, 謙訾, 亥也, 一名豕韋, 斗建在寅, 故寅與亥合.……故卯與戌合.……故辰與酉合.……故巳與申合.……故午與未合.……故未與午合.……故申與巳合.……故酉與辰合.……故戌與卯合.……故亥與寅合.……故子與丑合.……故丑與子合.”

한 以水和土와 以土和火에서 지지육합의 단서를 찾고, 『백호통』에 수록된 단문을 통하여 천간 합이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것도 『백호통소증』 주석에서 잘못된 글이라고 기술하였다. 이로 볼 때, 현대에는 오행의 생극이론은 성립되었지만, 오행의 합충이론은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오행의 충은 『玉照神應真經』<sup>64)</sup>에 看命하는 방식으로 “인신갑경이 있으면, 상인이나 하급관리가 된다(寅申庚甲 商途吏人).”라고 寅申 沖과 甲庚 沖을 출현시킴으로서 천간 충과 지지 충을 제시하였다.<sup>65)</sup> 그리고 합에 대해서는 “합이란, 갑과 기가 합이고, 을과 경이 합이며, 병과 신이 합이고, 정과 임이 합이며, 무와 계가 합한다. 인명이 이것을 얻으면 대대로 오래 산다.”<sup>66)</sup>라고 천간 합을 설명한다. 오행의 합충이론이 『옥조신응진경』과 『백호통』 등에 단편적으로 제시되지만, 합충이란 명칭으로 이론의 전말을 제대로 기술한 서적은 없었는데, 수대 소길이가 『오행대의』에서 간지 합에 대한 이론과 충과 이론을 온전하게 수록하여 생극합충 이론을 완전하게 정립하였다.

## 2. 오행의 刑害

『회남자』에는 형과 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오행대의』 「論刑」에서 支自相刑·支刑在干·干刑在支의 세 가지 형<sup>67)</sup>을 설명한다. 이중에 지형재간과 간형재지는 상용되지 않고 지지상형은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子卯를 相刑, 丑戌未·寅巳申을 三刑, 辰辰·午午·酉酉·亥亥를 自刑이라고 칭하며 형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論害」에서 害가 성립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서로 해하는 것은 십이신에서 역행하여 서로 만나 둘씩 서로 해치므로 여섯 가지 해라고 한다. 술과 유, 해와 신, 자와 미, 축과 오, 인과 사, 묘와 진이 육해이며, 살상한다는 뜻이다.<sup>68)</sup>

지지육합에서 一方을 沖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酉戌·申亥·子未·丑午·寅巳·卯辰을 지지육해로 정하여, 『오행대의』에서 오행의 생극합충 이론뿐만 아니라 형해이론까지 성립되었다.

## 3. 토의 會合과 十二運星法

『회남자』 「천문훈」에서 “土는 午에서 생하여 戌에서 장하고 寅에서 죽는데 삼신이 모두 토이다(土生于午,

64) 『玉照神應真經』은 일반적으로 東晉의 郭璞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四庫全書提要』에서는 곽박에 가탁한 위서라고 하였다(鄒文耀 撰, 『命學尋真』, 台北: 集文書局, 1982, 252쪽, “庫全書提要既考定玉照定真經爲託名于郭璞之僞書, 則此玉照神應真經當然亦是僞書.”).

65) 이명제, 「서자평의 명리사상 연구」, 『중국학연구』 제66집, 한국외국어대 중국학연구회, 2013, 381쪽.

66) 『玉照神應真經』, “合者 甲與己合 乙與庚合 丙與辛合 丁與壬合 戊與癸合 人命得之乃世世長年耳.”

67) 본문 각주 56) 참조.

68) 위의 책, 「論害」, “相害者, 逆行相遇于十二辰, 兩兩相害, 名爲六害. 戌與酉, 亥與申, 子與未, 丑與午, 寅與巳, 卯與辰, 是六害也, 是殺傷之義.”

壯于戌, 死于寅, 三辰皆土也).”라고 土의 生死를 지지 삼합 이론과 십이운성법을 연관하여 설명하는데, 토의 지지 삼합에 대하여는 다른 문헌에는 발견되지 않고 『회남자』에서만 午戌寅 三支의 합을 토의 회합으로 보았다.

『오행대의』 「相雜」 편에서 토의 會合에 대하여 “未·辰·丑·戌은 토의 자리다. 미토에는 王土가 있고, 진 토에는 死土가 있으며, 축토에는 衰土가 있고, 술토에는 壯土가 있으니, 이는 토의 體가 사방에 섞여있는 것이다(未辰丑戌, 土之位也. 未中有王土, 辰中有死土, 丑中有衰土, 戌中有壯土, 此土體雜在四方也).”라고 토의 회합을 진·술·축·미로 해석하고 있다.

『회남자』에서는 토의 會合을 午戌寅으로 설명하고, 『오행대의』에서는 辰·戌·丑·未로 토의 회합을 해석하는데, 『淵海子平評註』와 『精選命理約言』에서도 토의 회합을 辰·戌·丑·未로 설명하고 있다.<sup>69)</sup> 현대 음양오행 이론에서는 토의 회합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오행대의』 「相雜」 편의 지지 會合 논리가 이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회남자』 「천문훈」의 “土生于午, 壯于戌, 死于寅, 三辰皆土也.”에 대하여 현대음양오행의 십이운성법으로 해석하면 午에서 生하여 未에서 浴하고 申에서 帶가 되며, 酉에서 官이 되고 戌에서 旺이 되어 亥에서 衰가 되며, 子에서 病이 되고 丑에서 死가 되어 寅에서 墓가 되며, 卯에서 絕이 되고 辰에서 胎가 되어 巳에서 養이 된다. 「천문훈」과 비교하면 생지와 왕지는 일치하고 사지는 상이하다. 이는 「천문훈」에서 십이운성법의 단초가 처음 기술되어, 아직 용어와 순서가 온전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음양오행의 십이운성법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토의 십이운성법을 이렇게 설명한 문헌은 『회남자』가 유일하고,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火土同宮說과 水土同宮說에 따라 화와 수의 십이운성으로 논하며, 별도로 토의 십이운성법을 정하지 않았다.

『오행대의』에서는 특이하게도 토를 총칭하여 설명할 때는 십이운성법<sup>70)</sup>을 사용하여 土 중의 土인 未土를 旺으로 해석하였고, 토의 地支인 辰·戌·丑·未의 생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각각 구별하여 十一運星法<sup>71)</sup>으로 生長盛衰를 서술하고 있다.

『오행대의』의 토에 대한 십이운성법은 매우 특이하다. 오행 중 목·화·금·수의 십이운성법 외에 별도로 토에 대하여 성장성쇠를 설명한 문헌도 『회남자』와 『오행대의』가 특별한데, 더욱이 토의 지지 진·술·축·미 각각에 대하여 십이운성법을 적용한 경우에서는 『오행대의』가 유별하다. 『淵海子平評註』에서는 火와 土를 同宮으로 보고 십이운성법을 해석하고,<sup>72)</sup> 『精選命理約言』·『子平眞詮評註』·『滴天髓闡微』 등에서도 화토동궁설에 따라 화의 십이운성법으로 기술하지만, 『三命通會』 「論納音取象」에서는 “병진정사 沙中土, 토는 진에서 庫가 되고 巳에서 絕이 된다(丙辰丁巳, 土庫辰絕巳).”라고 토를 수와 같은 십이운성법으로 설명하며 수도동궁설을 따랐다.

69) 徐升,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論運化氣」, “辰戌丑未全, 曰稼穡句陳得位.”; 韋千里 編著, 『精選命理約言』, 台北: 瑞成書局, 2013, 「看一行得氣法」, “土日全辰戌丑未, 爲稼穡格, 土合四方爲方也.”

70) 본 논문 Ⅲ章 참조.

71) 본 논문 Ⅲ章 참조.

72) 『淵海子平評註』 「論天干生旺死絕」, “丙火·戌土, 生寅 沐浴在卯 冠帶在辰 建祿在巳 帝旺在午 衰在未 病在申 死在西 墓在戌 絕在亥 胎在子 養在丑.”

#### 4. 토의 用事

『회남자』에서는 토를 사계월설<sup>73)</sup> · 72일계하설<sup>74)</sup> · 30일계하설<sup>75)</sup>로 다양하게 해석하여 토가 주관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았는데, 『오행대의』 「辨體性」에서는 “토는 사계절의 사이에 있고, 여름의 끝에 거처한다(土在四時之中, 處季夏之末).”라고 하고, 또 “사계절을 주관함으로써 춘·하·추·동을 이룬다(以主四季成四時).”라고 하면서 『오행대의』에서는四季에 속하는 辰戌丑未를 土月로 인정하였다.

『회남자』와 『오행대의』 두 문헌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을 비교해보면 오행배속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동하다.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회남자』에서는 오행의 생극과 12운성법에 따른 오행의 성쇠와 왕상 휴수사 이론은 정립되었으나 합충이론이 성립되지 않았었는데, 『오행대의』에서 생극이론과 함께 합충이론이 확립되고 나아가 刑害 이론으로까지 발전하여, 음양오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中和를 위한 생극제화의 근간이 완비되었다. 그리고 『회남자』의 오·술·인 합토는 『오행대의』에서 진술축미 토의 회합으로 정리되었고, 『회남자』에서 세 가지로 기술하였던 토의 용사는 『오행대의』에서 四時의 四季인 진술축미월로 정하였다.

『오행대의』의 토의 독자 십이운성법은 다른 문헌에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이론이어서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화토동궁설과 수도동궁설로 토의 십이운성법을 설명하며, 토의 용사는 『오행대의』와 같이 진술축미를 사용하고,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생극이론과 『오행대의』의 합충이론은 물론 형해이론까지도 현대음양오행 이론에서 오행의 생극제화 원리에 사용하고 있다.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음양오행론 비교

	『회남자』	『오행대의』
오행의 生剋	생 :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극 :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회남자』와 동일
오행의 合沖	천간합충 : 없음  지지육합 : 寅申, 卯酉, 辰戌, 巳亥, 午子, 未丑 지지육충을 육합으로 설명  지지회합 :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午戌寅 合土,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천간합 : 甲巳 · 乙庚 · 丙辛 · 丁壬 · 戊癸 천간충 : 甲庚 · 乙辛 · 丙壬 · 丁癸 · 戊壬 · 甲戌 · 乙己 지지육합 : 寅亥 · 卯戌 · 辰酉 · 巳申 · 午未 · 子丑 지지회합 : 亥卯未 合木, 寅午戌 合火, 巳酉丑 合金, 申子辰 合水, 辰戌丑未 合土 지지육충 : 子午 · 丑未 · 寅申 · 卯酉 · 辰戌 · 巳亥

73) 『淮南子』 「天文訓」, “甲乙寅卯, 木也, 丙丁巳午, 火也, 戊己, 四季土也.”

74) 위의 책, “壬午冬至, 甲子受制. 木用事, 火煙青. 七十二日, 丙子受制. 火用事, 火煙赤. 七十二日, 戊子受制. 土用事, 火煙黃. 七十二, 庚子受制. 金用事, 火煙白. 七十二日, 壬子受制. 水用事, 水煙黑.”

75) 위의 책, 「時則訓」, “季月之月, 招搖指未, 昏心中, 且奎中. 其位中央, 其日戊己, 盛德在土.”

	『회남자』	『오행대의』
지지 刑害	없음	支自相刑：子卯·丑戌未·寅巳申·辰辰·午午· 酉酉·亥亥 支刑在干：寅庚·卯辛·辰甲·巳癸·午壬·未乙· 甲丙·酉丁·戌甲·亥己·子戊·丑乙 干刑在支：甲申·乙酉·丙子·丁亥·戊寅·己卯· 庚午·辛巳·壬辰·壬戌·癸丑·癸未 害：戌酉·亥申·子未·丑午·寅巳·卯辰
오행의 盛衰	壯生老囚死로 성쇠 설명	王相休囚死로 하며 내용은 동일
토의 십이운성	土：午-生, 戌-壯, 寅-死	戊·己：卯-生, 未-王, 戌-葬 辰：子-生, 辰-王, 未-葬 未：卯-生, 未-王, 戌-葬 戌：午-生, 戌-王, 丑-葬 丑：酉-生, 丑-王, 辰-葬
土의 用事	사계월설·72일계하설·30일계하설로 다양하게 인식	四季의 辰戌丑未를 土月로 인식

## VI. 맺음말

『尙書』 「甘誓」와 「洪範」에 이어 음양오행설이 광범위하게 조직화된 것은 『여씨춘추』와 『회남자』에서이고, 특히 『회남자』는 음양오행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 시령의 「시칙훈」과 天地自然의 음양오행 이치를 기술한 「천문훈」·「지형훈」·「태족훈」 등에서 발전되고 다양한 음양오행론을 수록하고 있다. 그 후 음양오행론이 『춘추변료』·『백호통의』·『한서』 「오행지」 등에 단편적으로 전해지다가, 소길의 수대 이전까지의 제 문헌에 수록된 음양오행론을 취합하여 『오행대의』를 집필·편찬함으로써 음양오행론이 집대성을 이루게 되었다.

한대의 『회남자』와 수대의 『오행대의』는 음양오행론의 발전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700여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회남자』에서 논한 음양오행론 중 오행의 생극과 왕상휴수사, 그리고 音聲·氣味·五常·五色 등 諸事物의 오행배속 대부분이 『오행대의』와 상동하다. 이는 추연으로부터 일관되게 다루어져온 음양오행론이 『회남자』에서 오행의 왕상휴수사와 삼합이론 성립, 그리고 육십갑자 간지력과 24절기의 완성 등으로 음양오행 기능이 발전되어 이미 성숙된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남자』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干습과 支습이 『오행대의』에서 간합·지지육합·지지삼합 이론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성립되고, 『회남자』 뿐만 아니라 진한대에는 거론하지 않았던 층파이론이 『오행대의』에서 층파이론과 더불어 형해이론까지 완성되었으며, 『회남자』에서는 토의 用事が 정리되지 않아 사계월설·72일계하설·30일계하설의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나, 『오행대의』에서 四季 辰未戌丑月로 정

하였다.

그리고 『회남자』에서 처음으로 십이운성법의 단초가 되는 생·장·사를 통하여 오행의 회합을 설명하며, 오·술·인으로 토의 회합과 십이운성법을 형성하였는데, 『오행대의』에서는 진술축미를 토의 회합으로 정하고, 십이운성법에서 화토동궁설과 수토동궁설에 따르지 않고 토의 십이운성법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더욱이 토의 지지 진술축미의 십이운성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회남자』와 『오행대의』에서 성숙된 음양오행 이론인 생극합충과 형해이론, 왕상휴수사와 십이운성법을 비롯하여 인월세수와 24절기, 그리고 사물의 오행배속 등을 통하여 고대로부터 천문·지리·민속·병법·풍수·한의학·명리학 등에 활용되어오고 있다.

이에 논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음양오행론에서 『회남자』와 『오행대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두 문헌에서 논의된 음양오행론이 唐代 이후 전개되는 음양오행론 연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管子』, 『白虎通義』, 『尙書』, 『玉照神應眞經』, 『呂氏春秋』, 『禮記』, 『春秋繁露』, 『漢書』, 『黃帝內經素問』, 『淮南子』.

강성인, 「『회남자』의 음양오행 사상과 명리학의 연관성 고찰」, 『도교문화연구』 40, 한국도교문화학회, 2014.

\_\_\_\_\_, 「『회남자』에 나타난 음양오행론의 특징」, 『동양학』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5.

김교빈·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아카넷, 2003.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지지합 연구」, 『철학논집』 3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2.

반고 저, 신정근 역, 『백호통의』, 소망출판, 2005.

서승 저, 심재열 역, 『淵海子平精解』, 명문당, 1993.

소길 저, 김수길·윤상철 역, 『五行大義』, 대유학당, 1998.

양계초·풍우란 저, 김홍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여불위 저, 김근 역, 『여씨춘추』, 글항아리, 2012.

유안 저, 안길환 역, 『淮南子 上, 中, 下』, 명문당, 2001.

유안 저, 이석명 역, 『淮南子 1, 2』, 소망출판, 2013.

은남근 저, 이동철 역, 『오행의 새로운 이해』, 법인문화사, 2000.

이동아, 「오행의 원리와 取象歸類의 방법(소길의 『五行大義』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석명, 「『淮南子』의 시령사상과 음양오행론」, 『大東文化研究』 7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장종원, 「소길의 『五行大義』에 나타난 오행설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진소암 저, 이용준 역, 『精選命理約言』, 청학출판사, 2007.

- 홍성국, 『사주 궁합의 비밀을 밝힌다』, 한솜, 2010.
- 鄭芷人, 『陰陽五行及其體系』, 台北: 文津出版社, 1992.
- 董仲舒 著, 『春秋繁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9.
- 萬民英 著,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班固 著,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出版, 2011.
-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蕭吉 著, 錢杭 點校, 『五行大義』,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1.
- 蕭吉 撰, 嚴繹 審訂, 『五行大義』, 台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 呂不韋門客 編撰, 關賢柱·廖進碧·鍾雪麗 譯注, 『呂氏春秋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0.
- 王引之, 『經義述文』, 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79.
- 韋千里 編著, 『精選命理約言』, 台北: 瑞成書局, 2013.
- 劉文典, 『淮南洪烈集解』, 北京: 中華書局出版, 1989.
- 殷南根, 『五行新論』,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3.
- 鄒文耀 撰, 『命學尋真』, 台北: 集文書局, 1982.
- 彭華, 『陰陽五行研究(先秦篇)』, 上海: 華東師範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4.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6일에 투고되어,  
2015년 12월 11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6년 1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The Status and Differences of *Huainanzi* (『淮南子』) and *Wuxingdayi* (『五行大義』)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Kang, Sungin\* · Kim, Manta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research on *Huainanzi*, which can represent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the Qin Dynasty(秦代) and the Han Dynasty(漢代), and *Wuxingdayi* in the Sui Dynasty(隋代). *Huainanzi* including *Shicheukhun*(時則訓) mentioned the Ruling with Times-Theory, contains a variety of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n *Cheonmunhun* · *Jihyeonghun* · *Jusulhun*(天文訓 · 墜形訓 · 主術訓), etc. So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s the most developed among literature up to the Han Dynasty. *Wuxingdayi* is the representative record of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that organized and compiled the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ancient times generally.

In the Theory of Yin-yang and Five-Elements discussed in *Huainanzi*, the Sheng · Geuk of the Five Elements and most of *Wangsanghyususa*(旺相休囚死) and 'Putting things into Five Phases' are similar with those of *Wuxingdayi*.

However, *Ganhap*(干合) and *Jihap*(支合) theories, which were not exactly identified in *Huainanzi*, were established in *Wuxingdayi*. In *Huainanzi*, the Sheng(生) and Geuk(剋) theory was completed but the Hap(合) and Chung(沖) theory was not established, while in *Wuxingdayi*, the Sheng · Geuk · Hap · Chung theory was defined and it was developed to the Hyeong(刑) and Hai(害) theory. In the former, *Haihap*(會合) of the Earth(土) was called *Osulin*(午戌寅), which was arranged to *Jinsulchukmi*(辰戌丑未) in the latter. In *Huainanzi*, the period during which the Earth governs a year was not defined, thus it was described in various ways such as *Sagyewolseol*(四季月說) · *72Ilgyehaseol*(72日季夏說) · *30Ilgyehaseol*(30日季夏說). But in *Wuxingdayi*, *Jinmisulchukwol*(辰未戌丑月) referring to *Sagye*(四季) was designated as the month when the Earth prevailed.

**[Key Words]** *Huainanzi*(淮南子), *Wuxingdayi*(五行大義), Yin-yang and Five Elements, ShengGeukHapChung(生剋合沖), Putting things in Five Phases

\* A Doctoral Program /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 Assistant Professor /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